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과 자녀의 도덕성 간 관계

윤 성 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대표하는 정의 위주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행동 실험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행동결과에 따라 도덕 집단을 분류하였다.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를 사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학교 1학년생 113명이었으며, 도덕적 딜레마가 제시된 실제와 유사한 실험상황에서 정의 위주 도덕성을 대표하는 정직행동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대표하는 친사회적 도움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시험부정행위 실험과 무보상 실험 참가 실험을 차용하였다. 연구 결과, 정의 위주 도덕성의 경우, 부정적 집단이 정직 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체면중시적이거나 부모-자녀 동일시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과보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보고한 자녀가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사회적 도덕성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도움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의의에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과보호 양육태도, 도덕성, 정의위주 도덕성, 친사회적 도덕성, 정직행동, 도움행동, 대학생

[†] 교신저자 :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8, E-mail : kmchung@yonsei.ac.kr

최근 핵가족화와 가정 경제의 성장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쏟는 부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과보호 양육태도가 여러 문화권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Bernstein & Triger, 2011; Cimarolli, Reinhardt, & Horowitz, 2006; Lowinger, & Kwok, 2001; Mak, 1994). 과보호 양육태도(parental overprotection)는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통제하여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향을 말한다(Thomasgard & Metz, 1993). 자녀의 주변에서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주는 부모를 지칭하는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이나 ‘미니밴 맘’(minivan mom) 등의 신조어(Gibbs, 2009, Nov 20)들은 증가하는 과보호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 미국 학부모 15000명 중 60%가 ‘헬리콥터 부모’라는 조사 결과(Somer & Settle, 2010)는 과보호 양육태도에 대한 우려가 과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국내 사정도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 청소년 79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원영, 1983)와 1676명 대상의 연구(박은정, 1996)도 자녀의 전 연령대에 걸쳐 과보호 양육태도가 빈번하게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부모도 과보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4개 대학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학년생 중 38%가 부모의 과보호를 보고하였고(Indiana University, 2007), 국내 대학생 322명 대상의 연구에서도 무려 42.2%가 과보호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은, 2009).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로 특징지어지는 대학생에게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부적응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는 시기인 청소년에게보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과보호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지현, 이명조, 2012), 우울(김지연, 오경자, 2010; Parker, 1979), 사회불안(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Spada et al., 2012), 사회공포증(Reti et al., 2002) 등 여러 정신장애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법학대학원 시험지 절도사건(YTN, 2013.12.17.)이나 토익부정행위 적발건수의 증가(내일신문, 2013.08.30.), 명문대의 집단따돌림(국민일보, 2013.10.15) 등 대학생 및 초기성년들의 부도덕 사건들이 신문 사회면을 채우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법, 규칙, 의무 등의 규범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각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판단능력인 ‘정의 위주의 도덕성’(justice-oriented morality: Kohlberg, 1981; Paiget, 1932)과 돕기나 나누기, 공감하기 등의 ‘친사회적 도덕성’(prosocial morality: Eigenberg, 1986; Rest, 1986)으로 대표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두 유형의 도덕성 모두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자아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LaFollete & Graham, 1986; Sober & Wilson, 1998; Youniss, 1980).

선행연구들은 개인 기질(이옥주, 2004; Farrington, 2003; Henry, Caspi, Moffit, & Silvia, 1996) 뿐 아니라 가정(최규련, 2010; 하영희, 김경연, 2003; Bowman, Prellow & Weaver, 2007; Hoffman, & Saltzstein, 1967), 학교(이철, 2009; Barnes & Farrell, 1992), 문화(이정훈, 2008) 등 환경적 요인들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으로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정종화, 1997; Kamii & Devries, 1978),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는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최시원, 1997; Boyes & Allen, 1993).

그러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녀 도덕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도 비일관적이다. 88명의 전학령기 아동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험상황에서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행동과의 관계를 2년 장기종단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Hastings, Rubin, & DeRose, 2005). 이에 반해, Tavecchio, Stams, Brugman과 Thomeer-Bouwens(1999)는 부모양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십대 거주 15-24세 남녀 162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도덕판단능력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과보호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능력이 낮음을 밝혔다. 18-27세 남녀 65명 대상의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도덕적 판단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lmer & Hollin, 1997).

국내 연구 역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 남녀 고등학생 400명 대상의 연구(이성희, 2009)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도덕 판단능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초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 양육척도를 사용한 류재국(2001)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형에 속하는 아동이 더 낮은 도덕 판단능력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고등학생 1495명

대상의 한 연구(이정훈, 2008)는 과보호 양육태도의 부모 간 영향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은 높게 지각될수록 공정, 책임, 청렴 요인으로 구성된 도덕성 자기보고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인데 반해,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내외 연구들의 서로 상이한 결과는 방법론상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상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한 비일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보호 양육태도는 전학령기 아동의 도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stings et al., 2005). 그에 반해,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과보호 양육태도가 여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이성희, 2009)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류재국, 2001; 이정훈, 2008). 성인 참가자를 포함한 연구들은 각각 부정적, 유의미하지 않음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두 연구도 대상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Palmer et al., 1997; Tavecchio et al., 1999). 도덕성 발달이 9세에서 20세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결과(Lamborn, Fischer, & Pipp, 1994)를 고려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과보호 양육태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보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차이로 인한 비일관적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과보호의 통제적 측면이 강조된 측정도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et al., 1979)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과보호 양육태도가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훈, 2008;

Tavecchio et al., 1999). 그에 반해, 거부적 태도가 제외된 과보호 양육척도(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EMBU, Perris, Jacobsson, Lindstrom, von Knorring, & Perris, 1980)를 사용한 연구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고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이성희, 2009; Palmer & Hollin, 1997).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측정도구의 사용이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함을 시사한다. 또한, 측정도구의 다문화 적용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과보호 양육태도는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받아 문화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Thomasgard & Metz, 1993), 일부 연구자들은 변안된 외국 양육척도의 사용이 한국 문화 특수적인 과보호 양육태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원영, 1983; 정은영, 장은숙, 2008). 특히, 국외 과보호 관련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보호 양육태도는 대개 자녀에 대한 통제적, 비애정적 태도로 나타나는데,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몇몇 비교문화 연구들은 한국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미국(Chao, 1994; Swap, 1993), 일본(이정규, 최순자, 2007), 중국(허철수, 2002), 베트남(Pham, 이진희, 신인숙, 2007) 등 다른 문화권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다. 또 타인의 평가로 자아 가치를 결정하는 체면중시 성향(Kim & Cohen, 2010)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성취지향적 성향(Asakawa & Csik-szentmihalyi, 1998) 등의 한국 문화특징은 지식중심의 대학입시방식과 유교적 가족공동체 문화와 결부되어, 타문화권에 비해 애정적이면서도 더 통제적이고 학업적 성취를 중시하는 독특한 과보호 양육태도 양상을 보인다

고 하였다(이원영, 1998).

셋째, 기존 연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도덕성 설문이나 가상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도덕 판단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들은 실제 도덕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도덕성은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의 영향을 받아 도덕 행동으로 표출된다(최지영, 2010; Rest, Narvaez, Bebeau, & Thoma, 1999). 그러나 자기보고 검사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이 작용하여 실제 도덕 행동과 불일치할 수 있다(Sherman, 1980; West, Ravenscroft & Shrader, 2004). 또 도덕 판단검사들(예, 도덕판단 인터뷰(Moral Judgement Interview, MJI; Lind, 1989), 친사회적 판단 측정도구(Prosocial Reasoning Objective Measure, PROM; Carlo, Eisenberg, & Knight, 1992) 등)은 도덕적 판단력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 행동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West et al., 2004).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도덕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덕 행동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Eskine, 2013; Gino, Schewitzer, Mead, & Ariely, 2011; West et al., 2004). 예를 들어, Mazar, Amir과 Ariely(2008)는 부정행위가 가능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참가자의 도덕행동을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맞힌 개수만큼 10달러씩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받고 문제지를 푼 후에 스스로 채점하여 맞힌 개수를 적어내었다. 이때, 실험 집단에게는 연구자가 실제 맞힌 개수와 보고 개수를 비교할 수 없는, 부정행위가 가능한 딜레마조건을 제시하였다. 시험부정행위는 여러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으

로, 시험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ehring, Nuss, & Pavela, 1986). 이는 시험부정행위 행동이 심각한 사회적 부도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정의 위주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정직성을 측정하는 행동실험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West et al., 2004). 또한 가짜 실험 후, 실험과 별개 상황인 것처럼 30분 소요의 후속 연구에 무보상으로 참가해 줄 자원자를 모집하여 참가자의 도움행동(helping)을 측정하거나 가짜 기부모금자가 투입되어 기부행동(sharing)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은 친사회적 도덕성을 측정하는 데 빈번히 사용되는 행동실험의 예이다(Meier, Moeller, Riemer-Peltz, & Robinson, 2012;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국내에서는 조인호(2012)가 남자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Mazar et al.(2008)의 도덕행동실험을 변형하여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부정행위를 유발함을 확인한 바 있었다. 부모 과보호와 자녀 도덕성을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의 위주 도덕성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도덕적 갈등상황은 개인의 이익과 타인 및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로, 친사회적 도덕성과 더 밀접하다(Calro et al., 2010; Eisenberg, Hofer, Sulik, & Liew, 2014; Hardy, 2006). 따라서 두 유형의 도덕성 각각에 미치는 과보호의 영향에 대한 행동실험적 탐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과보호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주로 부모를 통합적으로 측정하거나 어머니만 측정하였는데, 과보호 양육태도의 영향은 부모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

육태도가 아버지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히며 과보호의 영향에 부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정훈, 2008; Garmezy, Clarke, & Stockner, 1961). 이에 따라 부, 모 각각의 과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녀의 도덕성에 미치는 과보호 양육태도의 영향을 아버지와 어머니 측면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을 한국 문화특수적 과보호 개념을 반영한 도구로 측정하고, 지각된 부와 모의 과보호 수준이 자녀의 정직행동과 친사회적 도움행동, 두 측면의 도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인 남녀 113명(남: 39명, 여: 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 문화특수적인 과보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중·고등과정을 국외에서 마친 2명의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편부모 자녀 2명의 자료와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101명(남: 35명, 여: 6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심의 위원회(Departmental Review Committee)에서 연구 허가를 받았다.

측정도구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orean- 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K-POS).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특수적인 문화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 정경미, 윤성연, 심사중)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험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한국형 과보호 양육태도가 네 가지 하위요인-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성공과 관련한 성취에 더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성취지향’(4문항), 자녀의 심리, 행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관련한 ‘통제’(4문항), 자녀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하게 보고 자녀의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동일시’(3문항),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자녀양육방법의 잣대로 삼는 ‘체면중시’(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총 15문항의 각 문항은 한국 과보호 양육태도의 행동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 정도를 각각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경미, 윤성연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부모 각각 .76과 .72 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성취지향, 통제, 동일시, 체면중시 순서대로 아버지는 각각 .69, .76, .49, .63이었고, 어머니는 각각 .67, .75, .48, .51으로 나타났다. 3주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부모 각각 .69과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K-POS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

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부모 각각 .77와 .81이었으며,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성취지향, 통제, 동일시, 체면중시 순서대로 아버지는 각각 .67, .62, .55, .68이었고, 어머니는 각각 .67, .77, .47, .67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도덕행동 확인지

본 연구는 친사회적 도덕성을 대표하는 친사회적 도움행동 측정하기 위해 Meier et al.(2012)과 Eskins(2013)의 실험 방법을 차용하여 참가자가 모이지 않는 추가실험에 무보상으로 참가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도덕행동 확인지는 30분 정도의 무보상 추가실험에 참가동의를 묻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에 실험 참가의향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란이 있다.

인지 및 직무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였을 때, 정의 위주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정직 행동이 나타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상식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검사는 Mazar et al. (2008)의 실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방식을 수정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참가자에게는 ‘인지 및 직무능력 검사’로 공지하였다. 검사의 구성은 실제 기업체가 출제한 인적성문제 8문항과 일반인이 정답을 맞히기 어려운 문제 15문항,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4점으로 최대 100점까지 획득이 가능하나, 평균 50점의 난이도로 조작되었다.

또한 본 검사의 1, 2번 문항은 국어정서법 문제로, 참가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개념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 점화지문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지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가 포함된 상황을 작문한 것이며, 두 번째 지문은 사전의 ‘엄마’, ‘아빠’ 예문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예, 우리 엄마와 동네부인네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아빠는 혼자 알고 있는 비밀 장소로 나를 안내하는 양 신이 나서 앞장을 섰다 등). 두 지문 모두 참가자의 성별 및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조작되었다. 또한 지문이 일반 성인 및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모-자녀 관계를 점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18명에게 주관식 질문을 이용해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원이 지시문 이해에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18명 중 12명이 ‘부모’를, 6명이 ‘가족’을 연상시킨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화문은 참가자에게 부모를 떠올리게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직행동 자기보고지

정직행동 자기보고지는 참가자들의 정직행동 여부 대한 자기보고를 수집하여 부정직 행

동을 한 참가자를 분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내 상식검사 점수의 과대보고 여부에 대한 한 문항과 과대보고 여부에 따른 각각의 이유를 묻는 두 개의 문항이 객관식으로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가설예측 여부를 묻는 문항과 본 실험의 제한점을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 지시문에 자기보고지의 답변이 연구 목적 이외에 전혀 사용되지 않음과 개인정보 유출 및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절차

본 실험은 70인실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실험 회기마다 17-20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참여하였다. 정해진 실험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면 참가자들은 인지 및 직무능력 검사지와 빈 답안지, 점수기록지 및 불펜이 놓인 책상에 앉아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한 자리 이상 떨어져 앉아서 실험에 임하였고 옆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실험은 책임 연구자 및 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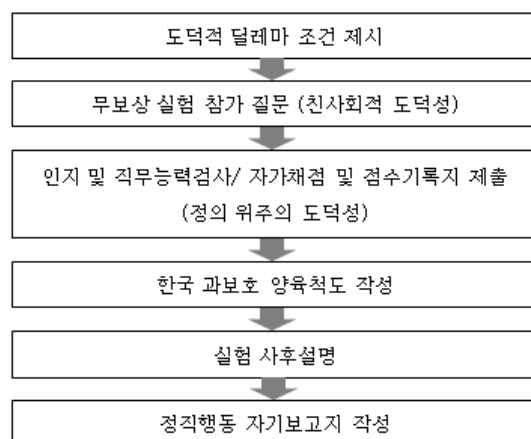


그림 1. 도덕성 실험 절차와 과정

연습을 통해 훈련된 실험자 1명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마다 사용되는 실험 프로토콜은 동일하였다. 총 실험 시간은 사전 설명을 포함하여 약 4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본 실험은 최대한 왜곡되지 않은 실제 도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가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목적으로 공지되었다. 실험은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크게 정의 의주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직행동 측정 실험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친사회적 도움행동 측정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정직행동 측정실험은 Mazar et al.(2008)의 실험연구 설계를 수정하였는데,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험 상황을 조작하여 참가자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정직행동의 여부로 분석한다. 또한 친사회적 도움행동 측정실험은 Meier et al.(2012)의 실험 방법을 차용하였다.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무보상 실험에 참가해 달라는 연구자의 부탁에 대한 실험참가 의향을 친사회적 도움행동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이 때, 30분의 시간과 실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세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먼저 참가자들은 인지 및 직무능력 검사가 끝나면 배부되는 답지를 참고하여 자가 채점 후, 점수만 제출하라고 지시받았다. 둘째는 제출한 점수를 토대로 상위 5%의 참가자는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받고, 하위 15%의 참가자는 20-30분이 걸리는 설문연구에 더 참가해야 실험 참가비를 받게 된다고 안내하였다. 마지막

으로 인지 및 직무능력 검사의 평균이 실제 검사평균보다 30점 가량 높은 70-80점 정도라고 공지를 받았다. 세 가지 사항들은 모두 경쟁적인 상황을 조작하고 낮은 평균점수가 나오는 검사의 결과를 과대 보고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 연구 방법이다.

공지를 마치면 실험자는 친사회적 도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부족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실험에 무보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추가 실험은 30분가량 소요될 것이며 실험자와 개별 연락하여 한 번 더 실험장에 와서 참여해야 한다는 실험자의 설명을 들은 후, 참가의향이 있는 참가자는 무보상 실험참가 란에 체크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20분 동안 상식검사를 풀고,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배부해주는 답지를 참고하여 스스로 채점하고 점수기록지에 자신의 학번과 점수를 적어서 제출하였다. 이때, 실험자는 문제지와 답안지 제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문제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당부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의 점수를 거짓으로 과대 보고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점수를 제출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를 수행하였다. 그 후, 속임 실험에 대한 안내와 실험의 본래 의도를 충분히 듣고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정직행동 자기보고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전체 실험이 종료되면 모든 검사지와 답안지는 수거되었다. 이는 자기보고에만 의존한 사후질문지 자료의 부정행위 여

부에 대한 응답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거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채점한 참가자들의 '실제점수'와 참가자들이 자가 채점 후 제출한 점수기록지의 '보고점수'의 비교에 활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과 자녀의 도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가 자기 보고한 과보호 척도(K-POS)의 점수와 정직성과 친사회성을 행동적으로 측정한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의 과보호 양육수준 간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더불어, 정의위주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직행동 여부에 따른 친사회적 도움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IBM SPSS Windows ver.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수준 비교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직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상황에서의 정직, 부정직 집단을 분류하였다. 부정직 집단에는 정직행동 자기보고지에 부정행위를 보고한 경우나 '실제 점수'보다 '보고점수'가 더 높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참가자들이 포함되었고, 그 외 '실제점수'와 '보고점수'가 같은 참가자들은 정직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정직·부정직 집단 간 지각된 과보호 수준 차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취지향, 통제, 동일시, 체면중시로 명명된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의 하위요인별 수준이 각각 자녀의 정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집단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집단에 비하여,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 또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t = 2.16$, $df = 99$, $p < .05$; Cohen's $d = 0.50$ (표 1)). 한편,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80$, $df = 99$, $n.s.$).

추가적으로 자녀의 정직성에 미치는 한국 과보호 양육태도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취지향', '동일시', '통제', '체면중시'로 이루어진 네 가지 하위요인들이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의 점수 합이 정직·부정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과보호 수준에서 정직집단과 부정직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요인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어머니가 부모자녀 간의 더 강한 동일시적 과보호 양육 양상을 보이며($t = 2.39$, $df = 99$, $p < .05$; Cohen's $d = 0.60$), 체면중시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많이 취한다고 지각하는 것($t = 1.98$, $df = 99$, $p < .05$; Cohen's $d = 0.48$)으로 나타났다. 과보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성취지향과 통제적 요인의 수준은 정직, 부정직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정직 집단과 부정직 집단의 과보호 총점 및 과보호 하위요인의 점수 비교

부/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i>t</i>
아버지 과보호 총점	정직	81	39.14	6.92	1.803
	부정직	20	42.45	8.97	
과보호 하위요인	성취지향	정직	81	14.06	0.590
		부정직	20	14.50	
	통제	정직	81	8.89	0.452
		부정직	20	9.20	
	동일시	정직	81	9.21	1.566
		부정직	20	10.15	
	체면중시	정직	81	6.98	2.460*
		부정직	20	8.60	
어머니 과보호 총점	정직	81	43.00	8.12	2.160*
	부정직	20	47.60	10.06	
과보호 하위요인	성취지향	정직	81	14.36	1.084
		부정직	20	15.15	
	통제	정직	81	10.43	1.044
		부정직	20	11.40	
	동일시	정직	81	10.10	2.387*
		부정직	20	11.40	
	체면중시	정직	81	8.11	1.981*
		부정직	20	9.65	

* $p < .05$, 과보호 하위요인: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의 하위요인

친사회적 도움행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 비교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해, 먼저 무보상 추가실험 참가동의서의 참가란에 체크를 표시한 참가자 집단을 친사회적 행동 집단, 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참가자집단

을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지각된 과보호 양육의 전반적 수준과 하위요인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과보호 수준($t = -1.68$, $df = 99$, *n.s.*)과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t = -.63$, $df = 99$, *n.s.*)은 모두 친사회적 도움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친사회적

표 2. 친사회적 행동 집단과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과보호 총점 비교

부/모의 과보호	집단	사례수	K-POS 평균	표준편차	t
아버지	친사회 행동 유	31	37.94	7.81	-.626
	친사회 행동 무	70	40.61	7.18	
어머니	친사회 행동 유	31	43.10	8.71	-1.684
	친사회 행동 무	70	44.27	8.71	

* $p < .05$, K-POS: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

도움행동 여부에 따른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점수의 차이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과보호수준 비교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의 과보호 양육수준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점수가 아버지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6.02$, $df = 100$, $p < .001$)

정의위주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 간 관계

정의위주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직, 부정직 집단과 친사회적 도움행동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정직행동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탐색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2 = .380$, $df = 1$, $n.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과 대학생 자녀의 도덕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 위주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정직행동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대표하는 친사회적 도움행동을 각각 실험연구 방법으로 측정하고 정직·부정직 집단 그리고 친사회적 도움행동 집단·친사회적 도움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국형 과보호 양육태도 양상을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K-POS를 사용하여, 이들 집단 간 지각된 과보호 양육태도의 전반적 수준과 하위 양상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의 위주 도덕성의 경우, 시험 부정행위를 한 부정직 집단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정직 집단에 비하여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체면중시적이거나 부모-자녀 동일시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과보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보고한 자녀가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전반적인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보호 하위요인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 부정직 집단이 아버지의 체면중시적 과보호 경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도움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직행동을 하는 학생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도덕적 행동의 일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와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가 대학생 자녀의 정의 위주의 도덕성에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류재국(2001)과 이정훈(2008), Tavecchio et al.(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거나(Tavecchio et al., 1999) 어머니 양육태도만을 측정하는 등(류재국, 2001) 도덕성에 미치는 과보호 양육태도의 부모 간 영향 차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모 간 차이를 탐색한 이정훈(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의 과보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전반적 과보호 수준이 도덕성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의 수준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이 아버지보다 더 높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관되게(Perris et al., 1980),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점수가

아버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별 지각하는 부와 모 간의 과보호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 난 정직, 부정직 집단의 경우, 부정직 행동을 한 참가자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데 반해, 아버지의 과보호 수준은 평균 이하로 보고되었다. 자녀의 주 양육자는 주로 어머니로,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Nock & Kingston, 1988). 따라서 자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간섭과 성취기대 등의 언급을 어머니로부터 들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육방식에서 부모의 차이를 비교한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보이는 데 비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율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박정연, 이성희, 2009;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이정훈, 2008). 이러한 과보호 경험 빈도의 절대적인 차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처럼 과보호를 자녀의 지각 수준으로 측정하는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을 높게 보고하는 양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정의 위주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덕성에 미치는 부모 과보호의 영향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는 과보호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 K-POS의 하위요인 분석 결과, 부정직 집단의 학생들은 정직집단의 학생들보다 아버지의 체면중시적 과보호 양상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체면중시적 과보호 양상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동일시적 과보

호 양육양상도 더 높게 지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녀의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태도 유형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과보호 양육태도에 서의 동일시 양상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 행복, 고통 등을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느껴, 자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국 어머니의 자녀와의 동일시 성향은 타문화권에 비해 강한 편으로 보고된다(한국 갤럽, 1980). 어머니가 자녀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와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과보호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을 때 불안과 죄책감을 갖게 되고(박병기, 임신일, 2010; Yeh & Huang, 1996),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과정을 밟기보다는 규범을 위반해서라도 결과적 성공을 추구하려는 부도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Gregory & Samantha, 2006).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몰입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Kim & Choi, 1994; Kim & Park, 2000), 어머니의 동일시적 과보호의 부정적 영향이 자녀의 학업영역과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자녀의 정직행동에 미친 부와 모의 영향차를 도덕성 전반에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따라서 다양한 도덕행동연구를 통해 도덕성에 과보호의 부모 간 영향차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 모두 자녀의 친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전학령기 자녀의 친사회적 도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Hastings et al.(2005)의 연구 결과와 불일치한다.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친사회적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이유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Hastings et al. (2005)는 전학령기 아동 부모의 통제적이기보다는 애정적인 과보호 양상이 자녀의 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전학령기 자녀의 부모가 보이는 태도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에 따른 과보호 양육태도 양상의 차이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덕행동에 따라 집단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즉, 정의 위주 도덕행동 실험에서는 도덕행동 집단과 부도덕행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친사회적 도덕행동 실험에서는 도덕행동 집단과 도덕행동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두 실험에서 결과의 차이는 도덕 집단의 비교 집단이 각각 ‘부도덕 집단’과 ‘도덕 판단 중립집단’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 친사회적 도덕행동을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한 집단과 친사회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집단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 위주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측정하는 데 각각을 대표하는 도덕 행동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과보호 양육태도와 도덕판

단 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도덕 판단능력 검사 점수와 실제 부정행위 행동 간의 부적관계(Grimm, Kohlberg, & White, 1968; Malinowski & Smith, 1985)나 친사회적 도덕설문 결과와 실제 행동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Miceli, Dozier & Near, 1991; Nowell & Laufer, 1997)은 실제로 도덕판단 능력과 실상황에서의 도덕행동이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보호 양육태도가 도덕판단 능력이 아닌 실제 도덕적 실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제언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도덕행동을 측정하기 전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되도록 한 점화설계 방법(priming design; 김은영, 류시천, 이진렬, 2003; Mazar et al., 2008; Vohs, Mead, & Goode, 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에 설명력을 높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상황에서의 부정행위 여부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자기보고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문제지를 수거하여 연구자가 직접 채점한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자기보고한 행동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최소화하였다. 실제로 부정적 행동을 한 20명의 피험자 중 14명은 정직행동 자기보고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나, 채점점수와 보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제 점수보다 과대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행위 측정방법은 도덕행동 측정의 오차를 감소시켜 과보호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덕성 연구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부정행위를 보고한 피험자들은 부정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일

부는 자신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 같아 부끄러워서’라고 답하였고(5명), 일부는 ‘상품권이 탐이 나서’(1명)라고 응답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이유가 다른 각 집단의 특성 등을 확인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본 연구는 기존 도덕관련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탐색되는 정의 위주의 도덕성과 친사회적 도덕성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두 도덕성 간의 일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의 위주의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친사회적 도덕성도 높은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도덕성과 정의위주 도덕성이 상충되는 실제 상황(예, 선의의 거짓말; Lamborn, Fischer, & Pipp, 1994)에서 개인이 우선시하는 도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두 도덕성의 발달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두 도덕성을 동시에 연구한 선행연구(Lamborn et al., 1994)는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청소년기를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과보호 양육의 장기화가 초기 성년들의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수준이 높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 대학생으로 후에 우리 사회의 리더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다. 연구결과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이후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가질 초기 성년들의 도덕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

정부패와 도덕성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의 변화로 일부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부모 대상의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 교육이나 대학생 대상의 자율성 수업교육 등 대학생 및 초기 성년들의 도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두 유형의 도덕성에 미치는 과보호 양육태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두 가지의 행동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 설계는 앞선 실험에서의 행동이 다음 실험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각 실험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해석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먼저 이루어진 친사회적 도덕행동 실험에서의 행동이 정의 위주 도덕행동 실험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도덕행동 실험을 독립된 두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각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자기보고 설문지 형태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탐색할 때는 부모 스스로나 제3자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측정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Conzaes, Cauce, & Mason, 1996; Steinberg, Mounts, Lamborn, & Dornbusch, 1991),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 등의 자기보고 설문지 한계를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도

실제 상황 속에서의 행동관찰 및 실험적 측정을 하여 추가적으로 비교한다면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의 일부 하위요인은 다소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일시 요인과 체면중시 요인은 하위요인 분석결과에서 정직과 부정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로 자녀의 도덕성에 미치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의 영향이 부와 모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해석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낮은 내적 일치도는 결과 해석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부분에서 다소 제한적인 본 연구의 피험자집단은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과보호 양육태도의 양상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도덕성 발달 시기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고려하면(신수현, 2012; Eisenberg, Febes, & Spinrad, 1998; Gfeelner, 1986), 대학생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과보호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영향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자녀 도덕성에 대한 과보호 양육태도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수가 적고 성비 균형이 맞지 않아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과보호 양육태도가 남녀 자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성희, 2009; 이시은, 이재창, 2008)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김진희, 강준자, 2008)들은 성별의 차이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집단 특성을 가진 참가자들을 확보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김은영, 류시천, 이진렬 (2003). 비주얼 이미지 정보의 점화효과에 따른 디자인 적용방안. *디자인학연구*, 273-280.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진희, 강준자 (2008).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8년 하계학술대회*, 137-138
- 류재국 (2001). 부모의 자녀 교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병기, 임신일 (2010).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4(4), 875-894.
-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중앙대학교
- 박정연, 이성희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실천유아교육*, 14(1), 40-57.
- 박지현, 이명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9.
-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사회불안. *스트레스 연구*, 18(1), 19-27.
- 신수현 (2012).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이성희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시은, 이재창 (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 이옥주 (2004). 충동성과 대처양식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3), 249-267.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 13, 1-18.
- 이정규, 최순자 (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145-158.
- 이정훈 (2008).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783-818.
- 이철 (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종합긴장모형과 세부긴장모형을 통

- 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16(3), 237-257
- 정경미, 윤성연 (2015).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 (K-POS)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준비 중인 원고.
- 정석용 (2013, 08, 30). 자식떨림 이용 신종 토익부정행위 적발, 내일신문, 20면 3단.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종화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단일호), 273-294.
- 조성은, 박요진 (2013, 10, 15). “친구가 아니라 벌레?” 한심한 서울대생들의 왕따 문화, 국민일보, 1면 5단.
- 조인호 (2012). 남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와 도덕성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규련 (2010). 가족구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48(7), 1-16.
- 최시원 (1997).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최지영 (2010). 전문가윤리의 관점에서 본 교사의 도덕성에 대한 탐색적 논의. 교육발전연구, 26(1), 73-90.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 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7-30.
- 한국 갤럽 (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세계 6개국 아동의 어머니의 의식구조 비교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연희 (2013, 12, 17). ‘시험지 유출’ 로스쿨생 적발... 징계착수,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312171017301228, (2014, 1, 13. 방문)
- 허철수 (2002).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상담의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13(2), 153-189.
- Pham, 이진희, 신인숙 (2007). 베트남과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아동교육, 16(2), 235-252.
- Anderman, E. M., Griesinger, T., & Westerfield, G. (1998). Motivation and cheat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1), 84.
- Asakawa, K., & Csikszentmihalyi, M. (1998). The quality of experience of Asian American adolescents in activities related to future goa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2), 141-163.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Bernstein, G., & Triger, Z. H. (2011). Over-Parenting. *UC Davis Law Review*, 44 (4), 1221-1280.
- Bowman, M. A., Prellow, H. M., & Weaver, S. R. (2007). Parenting behaviors,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cy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 A Mediated-moderation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517-527.
- Boyes, M. C., & Allen, S. G. (1993). Styl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moral reasoning in

-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39(4), 551-570.
-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1), 31-75.
- Carlo, G., Eisenberg, N., & Knight, G. P. (1992). An objective measure of adolescents' prosocial moral reas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 331-349.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 Cimarolli, V. R., Reinhardt, J. P., & Horowitz, A. (2006). Perceived overprotection: Support gone ba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1), S18-S23.
- Conzales, N. A., Cauce, A. M., & Mason, C. A. (1996). Interobserver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parental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frican American mothers, daughters and independent observers. *Child Development*, 67, 1483-1498.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Eisenberg, N., Hofer, C., Sulik, M. J., & Liew, J. (2014).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a prosocial orientation in young adulthood: Concurrent and longitudinal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58.
- Eskine, K. J. (2013). Wholesome foods and wholesome morals? Organic foods reduce prosocial behavior and harshen moral judgmen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2), 251-254.
- Farrington, D. P. (2003). Key results from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Cambridge study of delinquent development. In T. P. Thornberry, & M. D. K. Krohn (Eds.), *Taking stock of delinquency: An overview of findings from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 (pp.137-183). New York: Kluwer.
- Garnezy, N., Clarke, A. R., & Stockner, C. (1961). Child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fathers as reported by schizophrenic and normal patient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1), 176.
- Gehring, D. D., Nuss, E. M., & Pavela, G. (1986). *Issues and perspectives on academic integrity*.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 Gfeller, B. M. (1986). Ego development and mor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age and grade level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2), 147-163.
- Gibbs, N. (2009, November, 30). Helicopter parents: The backlash against overparenting. *Time*, 174(21).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940697,00.html>
- Gino, F., Schweitzer, M. E., Mead, N. L., &

- Ariely, D. (2011). Unable to resist temptation: How self-control depletion promotes unethical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5(2), 191-203.
- Gregory J. C. & Samantha S. B. (2006). *Addressing test anxiety in a high-stakes environment*. America: Corwin
- Grimm, P. F., Kohlberg, L., & White, S. H. (1968). Some relationships between conscience and attentional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239-252.
- Hardy, S. A. (2006). Identity, reasoning, and emotion: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ree sources of moral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3), 205-213.
- Hastings, P. D., Rubin, K. H., & DeRose, L. (2005).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67-493.
- Henry, B., Caspi, A., Moffit, T. E., & Silvia, P. A. (1996). Temperamental and familial predictor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convictions: Age 3 to age 18. *Developmental Psychology*, 32, 614-623.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
- Indiana University. (2007). *Experience that matter: Enhancing student learning and success*. Retrieved April 21, 2014, from http://nsse.iub.edu/NSSE_2007_Annual_Report/docs/withhold/NSSE_2007_Annual_Report.pdf.
- Kamii, C., & DeVries, R. (1978). Piaget for early education. In M. C. Day & R. Parker (Eds.), *The preschool in action* (2nd ed.). Boston: Allyn & Bacon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Y. H., & Cohen, D. (2010). Information, perspective, and judgments about the self in face and dignity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4), 537-550.
- Lamborn, S. D., Fischer, K. W., & Pipp, S. (1994). Constructive criticism and social lies: A developmental sequence for understanding honesty and kindness in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95.
- LaFollette, H., & Graham, G. (1986). Honesty and intimac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 3-18.
- Lind, G. (1989). Measuring moral judgment: A review of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by Anne Colby, Lawrence Kohlberg et al. *Human Development*, 32, 388-397.
- Lowinger, R. J., & Kwok, H. (2001). Parental overprotection in Asian American children: A psychodynamic clinical perspectiv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3), 319.

- Mak, A. S. (1994). Parental neglect and overprotection as risk factors in delinquenc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6(2), 107-111.
- Malinowski, C. I., & Smith, C. P. (1985). Moral reasoning and moral conduct: An investigation prompted by Kohlberg'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16-1027.
- Mazar, N., Amir, O., & Ariely, D. (2008). The dishonesty of honest people: A theory of self-concept mainten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6), 633-644.
- Meier, B. P., Moeller, S. K., Riemer-Peltz, M., & Robinson, M. D. (2012). Sweet taste preferences and experiences predict prosocial inferences, personalities, and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163-174.
- Miceli, M. P., Dozier, J. B., & Near, J. P. (1991). Blowing the Whistle on Data Fudging: A Controlled Field Experiment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4), 271-295.
- Nock, S. L., &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 Nowell, C., & Laufer, D. (1997). Undergraduate student cheating in the fields of business and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8(1), 3-12.
- Palmer, E. J., & Hollin, C. R. (1997).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own parenting on sociomoral reasoning, attributions for criminal behaviour,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2), 193-197.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2), 138-147.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Perris, C., Jacobsson, L., Linndström, H., Knorring, L. V.,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4), 265-274.
- Rest, L. (1986). *Moral development*. NewYork: Preager.
- Rest, J., Thoma, S., & Edwards, L. (1997). Designing and validating a measure of moral judgment: Stage preference and stage consistency approach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5.
- Reti, I. M., Samuels, J. F., Eaton, W. W., Bienvenu Iii, O. J., Costa Jr, P. T., & Nestadt, G. (2002). Adult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are associated with experiences of low parental care and maternal overprotec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2), 126-133.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3), 467-483.
- Sherman, S. J. (1980). On the self-erasing nature of errors of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11-221.
- Sober. E., & Wilson, D. S. (1998),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omers, P., & Settle, J. (2010). The Helicopter Parent: Research toward a Typology (Part I). *College and University*, 86(1), 18.
- Spada, M. M., Caselli, G., Manfredi, C., Rebecchi, D., Rovetto, F., Ruggiero, G. M., Nikecevic, A. V., & Sassaroli, S. (2012). Parental overprotection and metacognitions as predictors of worry and anxiety.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0(3), 287.
- Steinberg, L., Mounts, N., Lamborn, S., & Dornbusch, S.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ous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Swap, S. M. (1993). *Developing home-school partnerships: From concepts to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avecchio, L. W., Stams, G. J. J. M., Brugman, D., & Thomeer-Bouwens, M. A. E. (1999). Moral judgement and delinquency in homeless you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1), 63-79.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2), 67-80.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5802), 1154-1156.
- Wade, J. C. (1997). Perfectionism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ult children from dysfunctional but non-alcoholic families, and adults from non-dysfunctional famil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8, 7B.
- West, T., Ravenscroft, S., & Shrader, C. (2004). Cheating and moral judgment in the college classroom: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54(2), 173-183.
- Yeh, C. J., & Huang, K. (1996). The collectivistic nature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mong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31(123), 645-661.
- Youniss, J. (1982).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 투고일 : 2014. 08. 15
1 차 심사일 : 2014. 09. 02
게재 확정일 : 2014. 10. 1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veness and college students' morality

Jessica Lee Yoon

Kyong-Mee Chung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al overprotection on Korean college students' moral behaviors. To test the prediction that overprotected participants will show more immoral behaviors in moral dilemma situations, we measure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veness and morality. Participants were 113 college freshmen. Two types of modified experimental paradigms were used to assess participants on their levels of justice-oriented and prosocial morality. Based on whether they displayed moral behavior (i.e., honest or helping behavior) or not,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either moral or immoral group. Second, the levels of perceived maternal overprotectiveness and paternal overprotectiveness were assessed using Korean-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K-POS) and were compared between moral and immoral group. For justice-oriented mor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mor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erceived maternal overprotection compared to the moral group ($t = 2.16, p < .05$). On the contrast, paternal overprotection was not related to participants' honesty.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overprotective parental care are more likely to act immorally in moral dilemma situations dealing with justice. Meanwhile, for prosocial morality, both maternal and paternal overprotection levels did not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Mor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Overprotection, Justice-oriented Morality, Prosocial Morality, Moral behavior.